

주기도문의 번역과 Q 공동체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소기천* 윤효심**

1. 서론

신약성서에는 두 개의 주기도문이 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13절에 긴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6장 9-13절에 짧은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기도문이 있는가? 주기도문의 서로 다른 이중의 전승 형태는 전승 이전의 어떤 공통적인 원천으로 비롯되었는가? 주기도문을 소유한 최초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으며, 어떤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드렸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본 소고의 전개 방식은 두 문서 가설의 전제 아래 먼저 공관복음에 나타난 두 개의 주기도문을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의 기도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라본 Q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본문 분석에 사용될 공관복음의 그리스어 원문은 Nestle-Aland 제27판이고, Q의 원문은 The Critical Edition Q이다. 연구 방법은 기본적인 본문 비평과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주기도문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 과정, 신약학

번역하고 이어서 Q 공동체의 종말론과 연계하여 주기도문을 이해하고자 한다.

2.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주기도문

Q의 주기도문을 살피기 전, 여러 가지 유익한 조망을 위해 공관 복음의 마태와 누가에 기록된 주기도문 전승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두 복음서에 나타난 전승들을 먼저 비교, 분석하는 것이 공통자료인 Q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2.1. 마태복음 6장 9-13a절

2.1.1. 본문 사역

6:9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옵소서

6:10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6:11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οῦς ἡμῖν σήμερον·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6:12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
진 사람들에게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용서를 베푼 것같이
우리의 빚들을
ἡμῶν· 용서하여 주십시오.

6:13 καὶ μὴ εἰσειρέγκη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
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ἀλλὰ ῥύσαι ἡμᾶς ἀπὸ τοῦ ποιηροῦ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의 ἐπιούσιον이라는 난해한 단어는 각종 번역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conttidianum(일용할, it), supersubstantialem(간절하게 필요한, vg), perpetum(영원한, syc), necessarium(필요한, syph), venientem(앞날의, sa), crastinum(내일의, mae bo) 등으로 표현되었다.¹⁾

마태복음 6장 12절의 ἀφήκαμεν은 단순 과거로서 $\aleph^* B Z 1 22 124mg 1365 1582$, 라틴어 불가타의 다섯 사본인 syr^{p, h} with 8 cop^{fay} 등에 나온다. 현재형 ἀφίόμεν은 다른 모든 그리스어 증거들과 대부분의 고대 번역본들, 즉 구 라틴어, 대부분의 불가타 사본들, 콥트어의 사히드과 보하이릭 형태, 큐레토리안 시리아어(syrs hiat), 고트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아어의 가장 오래된 사본, 에디오피아어 번역본들이 지지한다.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인 11장 4절은 현재형인 ἀφίόμεν으로 되어 있다.²⁾

마태복음 6장 13절의 송영은 몇 가지 형태로 등장한다. 여러 후대 사본들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맺음말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 일부 후대 사본들(157 225 418 125)에는 원래의 기도문에 삼위일체적인 표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라가 영원히

1) Donald A. Hagner, *Matthew 1-13*, 33A, WBC (Dallas: Word Books, 1993), 144.

2) 메츠거(Bruce M. Metzger)는 평행구절이 없는 이문을 고려하면서 외적 증거의 무게에 근거하여 ἀφήκαμεν을 선택한다. 기도문에 사용된 전체 동사들의 시제가 일관되게 단순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의 기도문에는 ἀφίόμεν보다 ἀφήκαμεν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3.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ὄτι σοῦ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³⁾ 그러나 주기도문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주석들(터툴리안, 오리겐, 시프리아의 주석들)뿐만 아니라 초기의 중요한 대표적 본문들, 즉 **ⲛ B D f¹**의 본문 유형들에 어떤 송영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초기 교회에서 예배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각색하였음을 알려준다.⁴⁾ 그 때에 일반적으로 삼중 형식으로 되어있는 송영이 역대상 29장 11-13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디다케 8장 5-20절⁵⁾에 나오는 기도문이 마태복음의 기도문

- 3) 어떤 사본들(17 vg^{cl})에는 단순히 “아멘”(ἀμήν)이라는 말만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첨가문은 2148 k sa^{ms} 사본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Ὅτι σοῦ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이라는 문구이다. L W Q 0233 f¹³ TR Sy sa bopt Did 8:2 등에서는 이 문구가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실려 있다. 참고, Donald A. Hagner, *Matthew 1-13*, 33A, WBC, 144.
- 4) 또한 K Λ Ω Δ Θ Π f¹³에서는 삼중 운율 형식인 반면, 사히딕(Sahidic)과 파이유믹(Fayyumic)에는 ἡ βασιλεία καὶ가 없으며, 큐레토니아 시리어 번역본에는 ἡ δύναμις καὶ가 없고, 구 라틴어 번역본 k에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만 되어 있다. 일부 그리스어 사본들은 “영원히”를 “영원 영원히”로 확장하며, 그것들 대부분은 “아멘”(ἀμήν)을 덧붙이고 있다. 참고,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14.
- 5) ΔΙΔΑΧΗ ΤΩΝ ΔΩΔΕΚΑ ΑΠΟΣΤΟΛΩΝ;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정양모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2), 60-63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ῷ οὐρανῷ(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Ἁγιο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디다케가 마태복음을 인용했을 것이다.

마태복음과 디다케 기도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마태복음의 “하늘(τοῖς οὐρανοῖς)”은 복수형으로 쓰인 데 반해, 디다케의 “하늘(τῷ οὐρανῷ)”은 단수형이다. 둘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빛들(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고, 디다케에서는 “우리의 빛(τὴν ὀφειλήν ἡμῶν)”이라는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마태복음에서는 단순 과거형 동사 ἀφήκαμεν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디다케에서는 현재형 동사 ἀφίεμεν이 사용되고 있다. 넷째, 송영 부분도 마태복음에는 없으나 디다케에서는 “Ὅτι σοῦ ἐστιν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라는 문구로 나타난다. 다섯째, 디다케의 말미에는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하라(Τρίς τῆς ἡμέρας οὕτω προσεύχεσθε.)”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마태복음과 차이가 난다. 이 말미 부분의 첨가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 때문에 슈바이처(Eduard Schweizer)는 “디다케가 마태의 기도문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제의적인 실제 생활로부터 수용한 것”⁶⁾이라고 주장한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고,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ὴν ὀφειλήν ἡμῶν(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듯이),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ίε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우리의 빛을 용서하시옵고),
 Καὶ μὴ εἰσενεγκῆ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옵고),
 Ἄλλὰ ῥύσαι ἡμᾶς ἀπὸ τοῦ πονηροῦ(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Ὅτι σοῦ ἐστιν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 Eduard Schweizer,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마태오복음』,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57.

등의 문구는 마태의 특유의 첨가 부분이므로 디다케 편집자가 확실히 마태복음서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태만이 사용한 형용사 “온전한”(τέλειος, 마 5:48; 19:21)이 디다케(6:2)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디다케는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에 해당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는 그리스 원문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 소고도 다루지 않기로 한다.

2.2. 문학적 특성

2.2.1. 전후 문맥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의 산상수훈 중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6장의 명령은 산상수훈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중앙에 놓이게 된다. 산상수훈을 교차대칭구조⁸⁾로 바라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A 서론: 산상수훈의 배경(5:1-2)

B 서술: 훈계를 가르치도록 격려함(5:3-20)

C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5:21-48)

D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6:1-34)

C'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7:1-12)

B' 서술: 훈계를 지키도록 격려함(7:13-27)

A' 결론: 산상수훈의 결과(7:28-29)

7) Εἰ μὲν γὰρ δύνασαι βαστάσαι ὅλον τὸν ζυγὸν τοῦ κυρίου, τέλειος ἔσῃ· (만일 당신이 주님의 멍에 전부를 짊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온전하여 질 것입니다.), ΔΙΔΑΧΗ ΤΩΝ ΔΩΔΕΚΑ ΑΠΟΣΤΟΛΩΝ, 52.

8)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상설교의 문학·역사 비평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62.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서론적인 말씀이 나오고(6:1), 이어서 구제의 자세(6:2-4), 기도의 자세(6:5-15), 금식의 자세(6:16-18),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6:19-34)이 나온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 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한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1-34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대표적인 세 가지 경건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명령(6:1-18)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주기도문이 체자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2.2.2. 내용 구조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내용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나오고, 세 개의 “당신” 청원과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된다.

- | | |
|----------------|---|
| 하나님을 부름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당신” 청원 |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 “우리” 청원 |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것 같이 우리의 빛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 |

하나님을 부름은 기도의 대상을 지정한 것이고, “우리”라는 표현

은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임을 밝혀준다. 상반부인 “당신” 청원에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간구가 들어 있고, 하반부인 “우리” 청원에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간구가 들어 있다.

2.3. 누가복음 11장 2b-4절

2.3.1. 본문 사역

| | |
|-------------------------|-------------------------|
| 11:2 Πάτερ, | 아버지, |
|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

| | |
|------------------------|----------------------|
|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
|------------------------|----------------------|

| | | |
|-----------------------------------|-------|------------|
| 11: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 δίδου | 우리의 하루 양식을 |
| | | 날마다 우리에게 |
| ἡμῖν τὸ καθ’ ἡμέραν· | | 주십시오. |

| | |
|---------------------------------------|----------------|
| 11:4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ς ἁμαρτίας ἡμῶν, |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 |
| | 하여 주소서. |

| | |
|---------------------------------------|------------|
| καὶ γὰρ αὐτοὶ ἀφίομεν παντὶ ὀφείλοντι | 왜냐하면 우리 자신 |
| | 도 우리에게 빚진 |

 ἡμῖν·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 | |
|--------------------------------------|-------------------------|
|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ῃ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
|--------------------------------------|-------------------------|

누가의 주기도문 형식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문은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ἐλθέτω τὸ πνεῦμα σοῦ τὸ ἅγιον ἐφ’ ἡμᾶς καὶ καθαπισάτω ἡμᾶς,)”인데 두 개의 소문자 사본(700 162)에 보존된 것이다. 동일한 이문이 4, 5세기 즈음 누가

복음의 복사본들 안에 유통되었음이 낫사의 그레고리와 막시무스-콘페서의 글에서 증명된다. 전자는 주기도문 설교들 중 하나에서 나라의 임함에 대한 간구 대신에, ἐλθέτω τὸ πνεῦμα σοῦ τὸ ἅγιον ἐφ' ἡμᾶς καὶ καθαπισάτω ἡμᾶς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백히 선언한다. 그레고리의 증언은 막시무스가 확증했는데, 그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주석할 때 마태가 “나라”로 말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 중 다른 한 사람이 “성령”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한 간구의 최초 흔적은 터툴리안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의 간구 중 다섯 가지를 급히 해설할 때 보존되었다. 먼저 아버지에게 기도한 후 성령을 위한 간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뒤따라 나온다. 그러므로 초기 서방 본문은 그레고리가 인용한 이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를 대신하였음에 틀림없다. 베자 사본이 성령에 대한 간구의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필사본에서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뒤에 ἐφ' ἡμᾶς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츠거(Bruce M. Metzger)가 지적하듯, 베자 사본에서 ἐφ' ἡμᾶς가 더 초기의 성령을 위한 간구의 증거로 여겨져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거하도록” 하는 구약의 언급들(신 12:11; 14:23; 16:6, 11)⁹⁾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더욱이 터툴리안의 증거는 그가 성령에 관한 본문들을 특히 좋아하였던 시절인 몬타니스트로 있을 동안에 쓴 한 논문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그 이문은 주기도문의 원형을 예배의식용으로 개조한 것이며, 아마도 세례식이나 안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결케 하시

9) 칠십인역에는 “당신의 이름이 그 곳에 있기를(κύριος ὁ θεὸς ὑμῶν ἐπικληθῆναι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로 되어 있다[A. Rahlfs, (Hg.),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79), 309, 814, 816-817].

는 성령의 강림은 아주 명백한 교회의 개념이기 때문이다.¹⁰⁾

2.3.2. 문학적 특징

2.3.2.1. 전후 문맥

누가는 제자들의 삶의 여러 국면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단락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계명을 강조하는 사건이고(10:25-37), 둘째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에 대한 강조이며(10:38-42), 셋째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기도문에 대한 가르침(11:1-13)이다. 이 가운데 주기도문은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단락의 문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즉, 먼저 기도 방법에 대한 요청과 그에 따른 기도 모형에 대해 나오고(11:1-4), 다음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11:5-8).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11:9-13)을 강조하고 있다.

2.3.2.2. 내용 구조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0)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126-127.

- 하나님을 부름** 아버지
-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청원** 우리의 하루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누가의 주기도문은 마태와 동일한 내용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좀 더 짧고 덜 세련되어 있다. 마태와는 달리 누가는 상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와 하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가 생략되어 있다.

2.4. 마태와 누가의 ‘주기도문’ 비교

2.4.1. 사용된 어휘

마태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누가는 “아버지(Πάτερ)”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누가복음 11장 2절의 짧은 부름인 “아버지”는 예수가 자신의 기도에서 사용한 간단한 양식이다. 이 표현이 아람어 “아바(אבא)”를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보통 팔레스틴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라든가 “나의”라든가 하는 수식어구를 붙여 사용한다. 마태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

11) I. Howard Marshall,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The Gospel of Luke*; 『국제성서주석: 루가복음 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99.

지”라는 원래의 표현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배용으로 덧붙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러한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트루딩어(Trudinger)는 누가복음의 부름말에 마태복음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구가 생략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 신앙이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 있을 때에 글을 쓴 누가는 기도의 유대성을 유지하려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누가의 청중에게 “Abba!”라는 친숙한 어투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비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가까이 계신 분이였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근접성이 적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늘”이라는 모든 언급이 제거된 것이다. ‘하늘에 계신’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라는 표현은 편집자가 신학적인 이유로 생략했다.¹²⁾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구가 누가의 기도문에서 생략된 이유는 추측컨대 누가의 공동체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친숙한 호칭이 되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태가 단순히 “오늘(σήμερο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반해 누가는 “날마다(τὸ καθ’ ἡμέραν)”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마태의 “우리의 빛(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은 누가에서는 “우리의 죄(τὰς ἀμαρτίας ἡμῶν)”로 표현되고 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구인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ἀλλὰ ῥῶσαι ἡμᾶς ἀπὸ τοῦ πονηροῦ)”는 누가복음의 기도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2) Shawn Carruth and Albrecht Garsky, *Documenta Q. Q 11:2b-4* (Leuven: Peeters, 1996), 97에서 재인용.

2.4.2. 표현된 문법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특별한 구문상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지만 동사의 시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태복음의 기도문에는 부정과거 동사들이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기도문에는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두 복음서의 기도문에 사용된 동사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마 6:9-13a | 눅 11:2b-4 |
| 6:9 ἀγιασθήτω(ἀγιαζῶ의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법) | 11:2 ἀγιασθήτω(ἀγιαζῶ의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법) |
| 6:10 ἐλθέτω(ἔρχομα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법) γενηθήτω(γίνομαι의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법) | ἐλθέτω(ἔρχομα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법) |
| 6:11 δοῦς(δίδωμ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문) | 11:3 δίδου(δίδωμι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
| 6:12 ἄφεσις(ἀφίημ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법) ἀφήκαμεν(ἀφίημ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직설법) | 11:4 ἄφεσις(ἀφίημι의 단순 과거 능동태 명령법) ἀφίομεν(ἀφίημι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εἰσενέγκης(εἰσφέρω의 단순 과거 능동태 가정법) |
| 6:13 εἰσενέγκης(εἰσφέρω의 단순 과거 능동태 가정법) ῥύσαι(단순 과거 중간태 명령법) | |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기도문의 하반부인 “우리” 청원은 접속사 *καί*로 연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마태복음의 경우는 *ὡς*로 시작하는 구문이 두 번 나타난다(6:10, 12).

누가복음의 경우는 운율을 살린 언어 장치 중 각운법을 살리고 있다. 상반부는 *ου*라는 모음으로, 하반부는 *υ*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다. 마태복음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운율을 맞추고 있다.

동사의 시제 부분에 있어 마태복음의 경우는 기도문에 사용된 동사들이 일괄적으로 단순 과거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의 동사들은 단순 과거와 현재 시제가 혼용되고 있다. *δίωμι* 동사의 경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시제의 차이를 보이는데 명령법의 시제는 두 시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누가의 현재 시제는 무시간적 상태성을 표현하는 반면, 마태의 과거 시제는 사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과거 명령법으로 사용되어 “하루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루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의 의미가 된다. *ἀφίημι*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사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지속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기도문의 “당신” 청원에서 첫 번째 간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서는 *ἀγιαζω*의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문구의 숨겨진 주어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번역한다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번역이 될 수도 있다.¹³⁾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의 행위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γίνομαι*도 신적

13) Hans Dieter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24.

수동태로 보는 것이 문맥에 적합하다.

2.4.3. 내용 구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기도문의 유래를 더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먼저 “부름”에 관한 부분에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반면, 누가는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별다른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고 있다.

“당신” 청원들을 살펴보면, 마태와 누가는 처음 두 개의 청원은 동일하지만 누가의 경우는 마태의 마지막 청원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를 생략하고 있다. 이 “당신” 청원과 관련된 기도문의 상반부는 누가가 Q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주기도문의 하반부인 “우리” 청원은 마태의 마지막 청원의 일부인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3. Q 11장 2b-4절에 나타난 주기도문

3.1. 마태와 누가의 원천자료로서 Q

마샬(I. Howard Marshall)은 마태복음보다 짧고 덜 세련된 본문이 원래적이라는 기준을 따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더 원래적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없다. 그러나 그는 누가의 기도문이 마태와 Q의 기도문을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누가가 예수가 가르친 기도문의 문장들을 삭제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¹⁴⁾ 그렇

14) I. Howard Marshall,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The Gospel of Luke*, 99.

다면 누가복음 11장 2b절과 Q 11장 2b절, 누가복음 11장 4b절과 Q 11장 2b절의 정확한 문자적 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태와 누가의 공통부분은 Q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주기도문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마태와 누가, Q의 청원 순서가 동일하고 어휘 사용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도문의 기본 구조도 일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마태와 누가의 주기도문은 그 원천자료로 Q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Q가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가 되었을 또 하나의 가능성의 근거는 Q 공동체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Q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주기도문 중 “마태복음 6장 12절은 누가복음 11장 4절보다 Q 본문에 더 충실히 서 있는데 이는 Q 공동체가 후에 마태 공동체에 병합되었음”¹⁵⁾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Q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마 6:12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눅 11:4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ς ἀμαρτίας ἡμῶν, καὶ γὰρ αὐτοὶ ἀφίομεν παντὶ ὀφείλουτι ἡμῖν·

마태복음 3-11장이 주로 Q에 의존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Q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가보다도 마태는 Q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5) Ky-Chun So, “The Sabbath Controversy of Jesus: Between Jewish Law and the Gentile Missio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1998), 16-18, 170-171.

3.2. 본문 사역

- Q 11:2b [[ἴotan]] προσεύχ [[η]]σθε [[λέγετε]]·
 πάτερ,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 Q 11: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ὁ(ὁς) ἡμῖν
 (σ)ἡμερ(ο)ν·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 Q 11:4 καὶ ἄφεσ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ίλ(έταις)
 ἡμ(ῶ)ν·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η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3.3. 문학적 특징

3.3.1. 전후 문맥

Q의 주기도문이 나타나기 전의 단락인 Q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이 주어진다. 먼저 추수를 알리는 일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후, 그 일꾼들이 추수를 알리러 보내질 때 처신해야 할 지침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첫째로, 지갑이나 주머니, 샌들이나 지팡이조차도 가

지지 말아야 한다(10:4). 일꾼은 그의 삶을 당연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10:7-8). 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추수를 알리러 가는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야 한다(10:4). 다시 말해서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로 집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이 집에 평화가 있으라”고 인사해야 한다(10:5).

고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접할 경우에는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한다. 전자는 식탁 교체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후자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행위로 현재성이 강하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언급되었다(7:22). 그리고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 나올 때 밭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될 것이다. 추수의 주인이 보낸 일꾼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추수한 이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어지는 Q 10장 12-16절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고라신과 벳새다, 가버나움은 이 방지역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경고가 주어진 후에 본문은 다시 한 번 회개를 촉구한다(10:16). 추수를 알리는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설명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Q 11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 말씀이 계속되는 부분이다. 주기도문은 11장의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이 오직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11:2b-3).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그것을 현재

에 취하고 찾으면 미래에 열릴 것이다(11:9-10).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11:11-13). 병어리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11:14, 20). 적대자들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11:16-32). Q 11장 39-52절에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11:29, 33-35)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한 화가 선포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죄악상이 신랄하게 나열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닫아버린다.

Q의 주기도문(11:2b-4)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선교 지침 중 하나로 주어지고 있다. 제자들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전도 활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이 기도문은 제자들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3.2. 내용 구조

Q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구조는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마태복음과 거의 일치한다.

- | | |
|----------------|---|
| 하나님을 부름 | 아버지! |
| “당신” 청원 |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
| “우리” 청원 |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것 같이 |

우리 빛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Q의 주기도문은 부름말과 다섯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당신” 청원이 두 개, “우리” 청원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차이가 나는 점은 첫째로, 부름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당신” 청원의 마지막 부분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 셋째로 “우리” 청원의 마지막 문구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생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휘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3.4. 종말론적 해석

첨가된 부분이나 용어 변경이 없는 원래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Q의 주기도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히려 예배용으로 후대 교회가 부분적으로 변경시킨 주기도문은 본래의 과격하고 강력한 메시지에 비해 현대인의 귀를 무디게 한다. 이 기도문 안에 작용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동성은 이제 그것이 오래된 만큼 복합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만일 마태와 누가가 전해주었던 방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동체들이 그 기도의 의미를 적절하게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¹⁶⁾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도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 기도를 제시한다. 그리고 기도문의 청원들은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목을 가

16) Richard Valantasis,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5), 116.

진 폭넓은 범위를 총망라하고 있다. 예수는 기도의 기준이 되는 제목으로 다섯 가지 청원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 제목들은 공동체를 형성했던 가치를 드러내는데 기도는 그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면밀하게 잘 분석해 보면 Q 공동체의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3.4.1. Q 11장 2b절

Q 11장 2b절과 마태복음 6장 10a절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국제 Q 프로젝트는 Q 본문을 복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¹⁷⁾ “하늘에 계신”이라는 마태의 첨가를 제외하고는 두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로빈슨(Robinson)은 마태복음 기도문의 부름말에서 하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인간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마태는 기도문에서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익숙한 형식을 제시한다(마 6:9). 그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ὁ πατήρ ὁ ἐξ οὐρανοῦ)은 그 본문의 진술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주실 것인지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주실 것인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그는 마태의 전형적인 공식어구를 단순히 Q 읽기로 간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늘나라”에 대한 마태의 선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마태의 선호와 유사하며, 이런 점에서 둘 다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관심, 즉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인간의 아버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반영한다¹⁸⁾고 본다. 곧 로빈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17) Stanley D. Anderson, ed., *Documenta Q: Reconstructions of Q through Two Centuries of Gospel Research Excerpted, Sorted and Evaluated: Q 11:2b-4* (Leuven: Peeters, 1996), 4;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80에서 재인용.

마태의 전형적인 공식어구로 간주하고 Q와는 별개의 수식어구로 본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구가 마태의 전형적인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Q와 상관없는 읽기라고 할 수 없다.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는 Q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¹⁸⁾

Q 11장 2b절은 기도문의 다섯 가지 청원 중 첫 번째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간청하고 있다. 여기서 ἁγιαῖζω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 신성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유대적이고 그리스적인 제의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제의 의식에서도 나타나는 용어이다. 수동태로 이루어진 이 문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강조점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이 수동태는 예배자를 가리키지 않고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는 단지 도구임을 말해준다.²⁰⁾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극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진술은 다른 왕국, 다른 통치 구조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통치자나 왕에 대한 배반을 나타낸다. 이 통치 규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모든 왕국들을 뒤엎고 타파하고 사회의 통치력이 되기를 기도한다. 첫 번째 제목이 거룩하게 하는 제사와 관련된 반면, 두 번째 제목은 과

18) 참고, Shawn Carruth and Albrecht Garsky, *Documenta Q. Q 11:2b-4*, 105.

19)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아빠’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Q 공동체에서 제자들에게 의해 이 호칭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초기 제자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Richard Valantasis,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117.

격한 정치적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통치자도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 이외에 다른 어떤 왕국도 없다.²¹⁾

3.4.2. Q 11장 3절

몇몇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구약성경의 암시적인 언급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엘리슨(Dale C. Allison Jr)은 이 구절이 출애굽기 16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민수기 21장 5절에서 “양식”이라고 불리는 “만나”가 나타나는데 이는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이며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Q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다.²²⁾ 게다가 바바라 린다스(Barnabas Lindars)는 누가의 편집적인 “날마다(τὸ καθ’ ἡμέραν)”가 칠십인역 출애굽기 16장 5절에 나타나며,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는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에 대한 암시가 모세와 만나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²³⁾고 주장한다.

한편 란셀롯 앤드류(Lancelot Andrew)는 주기도문이 시편 78장 25절에 인용된 “천사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거기에서 사막의 만나가 “천사들의 양식”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데렛(J. D. M. Derrett)은 모세가 만나를 저장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을 주목하고, 따라서 주기도문이 “저장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21) 위의 책, 117-118.

22)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51.

23) Barnabas Lindars, “Discourse and Tradition: The Use of the Sayings of Jesus in the Discourse of the Fourth Gospel,” *JSNT* 13 (1981), 88;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51에서 재인용.

24) Lancelot Andrew, *The Private Devotions of Lancelot Andrew* (New York: Meridian, 1961), 284;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52에서 재인용.

다.²⁵⁾ 또한 건드리(Robert Gundry)는 주기도문에서 양식에 대한 청원을 매일의 생계유지를 위한 간청으로 이해하면서 잠언 30장 8절²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²⁷⁾

이와 같이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제목인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ἐπιούσιον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단어는 오늘을 위해, 다가오는 날을 위해, 혹은 날마다 충분한 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초기 교부들 중 어떤 이는 거룩한 나라의 초월적인 양식을 의미한다고 본다.²⁸⁾ 브라운(Raymond E. Brown)이나 예레미야스(Joachim Jeremias)는 나사렛 복음서(Gospel of the Nazaraeans)를 따르면서 다가올 왕국을 위한 기도와 유사하게 양식을 위한 기도를 취한다.²⁹⁾

쉬어만(Heinz Schürmann)은 ἐπιούσιος가 “내일을 위한” 뜻으로만 해석된다면 “오늘(σήμερον)”이라는 말이 이 문구에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왜 내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만일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가난한 샳꾼들이 그날그날 자신의 품삯을 벌

25) J. D. M. Derrett, *The Ascetic Discourse: An Explana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Eilsbrunn: Ko'amar, 1989), 48.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52에서 재인용.

26)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27) 참고,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241.

28) Richard Valantasis,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119.

29) Raymond E. Brown, “The Pater Noster as an Eschatological Prayer,” *New Testament Essay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8), 275-320; Dale C. Allison, Jr,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53에서 재인용.

어야만 했고, 다음날 일터에 나가기 전에 아침상을 준비해야만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앞선 오늘이 아닌 ‘내일’에 중점을 둔 해석은 본래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내일을 위해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의 명령적인 가르침(마 6:34)은 과연 다가올 날에 대한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오늘 절실히 필요한 양식은 결코 내일 먹게 될 그런 빵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절박한 것이며 오늘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오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³⁰⁾ 발랜타시스(Valantasis)도 비슷한 해석을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그는 “그 양식이 구약(출 16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처럼 특별한 양식이든지, 오늘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든지 간에 이 청원은 하나님께 영원한 식량과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날을 지내기에 충분한 것을 요청한 것”³¹⁾ 이라고 말한다.

만일 주기도문이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만나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었다(출 16:4 참조). 즉, “날마다”는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누가에게 사용되고 있다. 마태의 “오늘”은 지속적인 의미보다는 “현재”라는 시간 개념을 강조한 듯 보인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제목인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는 현재라는 시점에서 기도한 것이되 내일의 현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30) Heinz Schürmann, *Das Gebet des Herrn*; 『주님의 기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3), 119-120.

31) 이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더도 덜도 아닌 단지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의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이다. 즉, 기도자들은 힘든 시기를 위해 비축해 둔 어떤 양식도 없이 다른 어떤 후원 수단도 없이 삶과 사역에 있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Richard Valantasis,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119.

수 있다. 즉, 이 청원을 드리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다. Q 11 장의 문맥에서 볼 때 이러한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즉, 이 기도문은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전도 활동에 나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그 날을 지내기에 충분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이 기도문을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드리기 때문이다.

3.4.3. Q 11장 4절

Q 11장 4절은 평행본문인 마태와 누가의 용어 사용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마태는 “빛들”이라고 표현한 반면, 누가는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Q의 본문은 마태와 일치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예수의 원래 언어에 속하는가? 추측컨대 마태의 “빛들”이라는 용어가 더 원래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마태의 것이 Q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본문의 후반부에서도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은 매우 과격한 경제 정책이다. 모든 기독교 시대에는 이 청원의 의미를 영성화하든지, 금전적인 빛 외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 청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빛이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빛진 자를 용서해야 함을 대담하게 진술한다. 더 이상의 부채란 없다. 대출받은 돈에 대한 더 이상의 이자는 없다. 빌리고 이자를 주고 되갚는 경제 체제는 더 이상 없다.

이 청원은 왕국의 거룩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자들이 다른 이들의 빛을 용서해 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빛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기를 주목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자들이 빛을 용서하는데 이것이 첫 단계이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일어난다. 공동체의 규범은 더 이상의 부채도 없고, 빛으로

다른 이들을 가두는 일도 없다. 그 다음에 공동체는 하나님께 그들이 공동체 내부에서와 외부에서 다른 이들을 다른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도자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빛의 용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 없이 빛진 이들의 모든 빛이 용서받을 것을 진술한다.

이 기도는 극적인 마지막 청원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리스어 *πειρασμόν*은 ‘시련, 유혹, 걱정이나 근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문맥에서는 종말론적인 함축, 즉 말세에 나타나게 될 시련이나 유혹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근 *πειρα*는 ‘시련, 시도, 경험, 경험 가운데서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이 청원은 마지막 때나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청원자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보호되는 삶의 방식, 즉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것을 세워달라고 요청한다.³²⁾

이 기도문은 참으로 과격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의 제사를 가정한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위에 놓는다. 그것은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위치시킨다. 그것은 철저한 의존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청원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 주도록 간청하기 위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제 체계에서 탈퇴한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읊처럼 포기할 수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남아있는지 알기 원하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시험, 즉 기도자들의 용기를 시험하시기를 요청한다.³³⁾

32) Richard Valantasis,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119.

33) 이 거룩한 시험의 가능성에 대한 소개는 기도자들이 모두 위험을 감수할

3.5. 주기도문을 통해 본 Q 공동체의 종말론적 전망

Q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공동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Q의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종말론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휘들, 즉 “당신의 나라(하나님 나라),” “오늘 하루 양식” 등이 나타난다. Q 본문 전체에는 현재적 종말론의 이미지³⁴⁾와 미래적 종말론의 이미지³⁵⁾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주기도문 단락에서도 과연 그러한가?

주기도문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적 종말론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재적 이미지는 전체 본문을 통해 연결고리처럼 나타나고 있다. Q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하거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11:20에서도 똑같이 언급된 “ἐφ’ ὑμᾶς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란 표현에서 “ἐφ’ ὑμᾶς”는 (1) 너희 위에, (2) 너희 앞에, (3)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Q 16장 16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³⁶⁾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는 병고침이다.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친 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병든 자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질서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질서의 회복은 사람 사이의 관계로 확대된다(17:3-4).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것, 실패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기회를 가질 것, 궁극적으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독자나 암송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남겨두고 이 극적인 기도를 끝내는 것은 바로 거룩한 위험이다. 참고, 위의 책, 120.

34) Q 12:8-9, 39-40; 13:18-21, 24-30; 17:24, 26-27, 30 등.

35) Q 10:9; 11:20; 12:51, 53 등

36) 소기천, “예수와 Q 공동체의 하나님,” 『신학사상』 104 (1999), 178.

의미한다(12:58-59).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해 사람들에게 침노 당한다(16:16).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나라의 문은 열리게 된다(11:9-13).

이와 같은 현재적 종말론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Q 공동체 안에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일 것이다.³⁷⁾ 그들은 박해 상황에도 자신들의 신앙에 충실하자고 격려하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매일 드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 매일 새롭게 “오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Q 공동체에 부여된 현재적 종말론의 의미는 공동체 내부를 향한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Q 공동체는 박해 상황 속에서 임박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회상하면서 신앙 공동체로서 필요한 견고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내적으로는 Q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림 지연이라는 상황 변화가 Q 공동체에게 더욱더 강한 종말론적인 동기를 제공해 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⁸⁾

4. 결론

예레미야스(J. Jeremias)에 의하면³⁹⁾, 주기도문은 1세기부터 이미 교회생활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1세기의 디다케, 2세기의 마르

37) 물론 Q의 주기도문에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미래적 종말론의 이미지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오늘”까지를 포함한 의미한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은 늘 현재이지만 미래를 향하고 있다.

38)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 개론』, 130.

39) J. Jeremias, “The Lord’s Prayer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The Prayers of Jesus*, John Reumann, trans. (Norwich: SCM, 1976), 82-85.

시온 사본, 4세기 예루살렘 장로 시릴의 소요리 문답 등을 통해 볼 때, 주기도문이 초기 교회에서 차지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는 오늘과 차이가 있다. 초기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특히 성례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대체로 세례식을 전후하여 세례 예비자나 갓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으며, 교회의 완전한 일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성만찬 예식 직전에 함께 낭독되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그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Q 공동체가 관심을 두었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통치자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기에 그날을 지내기에 충분한 양식만 있으면 만족했고, 서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 ‘빚’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Q 공동체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험을 감수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갔다.

비록 재림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살아간 이들이 바로 Q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정착과 안전과 축적만을 추구하는 현대교회에 이러한 Q 공동체의 종말론적 신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주기도문, Q 공동체, Q 본문, 종말론, 번역

<Key Words>

The Lord's Prayer, Q Community, Q Text, Eschatology,
Interpretation

참고문헌

-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소기천, “예수와 Q 공동체의 하나님,” 「신학사상」 104 (1999).
-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상설교의 문학-역사 비평적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Allison Jr, Dale C., *The Intertextual Jesus: Scripture in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rown, Raymond E., “The Pater Noster as an Eschatological Prayer,” *New Testament Essay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8.
- Carruth, Shawn and Albrecht Garsky, *Documenta Q. Q 11:2b-4*, Leuven: Peeters, 1996.
- Derrett, J. D. M., *The Ascetic Discourse: An Explana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Eilsbrunn: Ko’amar, 1989.
- ΔΙΑΔΥΧΗ ΤΩΝ ΔΩΔΕΚΑ ΑΠΟΣΤΟΛΩΝ,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정양모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33, WBC, A. Dallas: Word Books, 1993.
- Jeremias, J., “The Lord’s Prayer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The Prayers of Jesus*, John Reumann, trans., Norwich: SCM, 1976.
- Ky-Chun So, “The Sabbath Controversy of Jesus: Between Jewish Law and the Gentile Missio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1998.
- Lindars, Barnabas, “Discourse and Tradion: The Use of the Sayings of Jesus in the Discourse of the Fourth Gospel,” *JSNT* 13 (1981).
- Marshall, I., *Howard.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The Gospel of Luke*, 『국제성서주석: 루가복음 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신

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 원문 연구소, 2005.

Rahlfs, A. (Hg.),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79.

Robinson, James M., Paul Hoffmann and John S. Kloppenborg, eds., *The Critical Edition of Q: A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 of Q and Thomas*, Leuven: Peet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0.

Schürmann, Heinz, *Das Gebet des Herrn*, 『주님의 기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3.

Schweizer, Eduard,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마태오복음』, 한국 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Valantasis, Richard, *The New Q: A Fresh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5.

<초록>

주기도문의 번역과 Q 공동체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윤효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 과정, 신약학)

Q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려는 예수의 의도를 보여주는 전승들을 간직하고 있다. 다른 Q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은 Q의 예수를 예언자 이상으로 확신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Q의 사본 증거에 관하여 마태와 누가 두 본문 사이에 있는 평행구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9-13과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배후에 원래의 Q 본문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결코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므로 본 소고는 마태복음이 주기도문을 확대하였다는 사실과 누가복음이 주기도문을 자신의 스타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더 나아가서 복음서 기자들이 주기도문과 같은 예수의 잘 알려진 가르침의 형태를 채택하여 예수의 종말론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본 소고는 복음서기자들이 2차적으로 편집한 단어나 구절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려는 예수의 의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Q 공동체의 종말론과 관련해 Q의 예수께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의 순종 속에 현존하는 현

재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변경한 것처럼, 본 소고는 예수께서 매일의 삶이 미래적 계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단지 한 날의 삶을 위한 현재적 삶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f An Interpretation of the Lord's Prayer and the Eschatology of the Q Community

Prof. Ky-Chun So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h. D. Cand. Hyo Shim Yoo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Lord's Prayer in Q contains fragments of tradition which describe Jesus' intent to gather the people of God for the eschatological day of salvation. In coherence with other Q passages, the Lord's Prayer confirms that Jesus in Q is more than prophet. The hypothesis of a Q original behind Matt 6:9-13 and Luke 11:2-4 is by no means problemless despite the vast number of scholars who judge the parallels between the two versions to be evidence of a Q Vorlage. Hence, this paper investigates that caution is appropriate de-

spite attempts to see the differences in length as Matthew's expansion to the Lord's Prayer and the differences in tense and vocabulary as alternations typical of Luke's style to the Lord's Prayer. Furthermore, this paper wants to know that word counts which often form the basis for ascribing a word or phrase to secondary redaction could be misleading in the case of the Lord's Prayer as the Evangelists could have adopted a form of speech from a known dominical teaching of Jesus like the Lord's Prayer and subsequently repeated the usage elsewhere as eschatological characteristic of Jesus. In relation to the eschatology of the Q community, this paper knows that just as Jesus in Q has shifted emphasis from the future coming of God's kingdom to its present coming in obedience of disciples, so also he shifts emphasis from the future succession of present life to the life for this day alone.